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미니금선물시장 개설 결정

□ 금융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서 미니금선물 시장개설을 위한 ‘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(안)’을 승인함.

- 최근 국제 금가격의 변동성 확대, 금펀드 등 국내 금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 등으로 금가격에 대한 헤지수요가 증대됨.
- 국내 표준 금선물 시장은 큰 거래단위, 실물인수도 결제방식 등으로 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인 반면, 미국, 일본, 인도 등 금선물 거래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미니금선물이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 중에 있음.
- 따라서, 정부는 기존 금선물에 비해 거래단위를 1/10수준으로 축소하고, 현금결제 등의 제도를 일부 변경한 선물상품인 미니금선물의 도입을 결정함.

□ ‘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(안)’에서 언급된 주요 상품명세의 내용에는 거래단위, 거래시간, 최종거래일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- 거래단위는 99.99% 순도의 100g단위 금으로 하고, 거래시간은 평일 및 최종거래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로 함.
-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 세 번째 수요일(최종결제일 T+2일)이며,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장종료 이후 최초 공표되는 런던 금시장 Gold Fixing 가격을 g 및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며, 최종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결정함.

□ 동제도 도입을 통해 금 현물시장 투명성 증대, 소규모 정밀한 위험관리 기능 확대, 해외 금선물에 대한 거래수요 흡수 등의 효과가 기대됨.

- 실시간 공표하는 미니금선물가격은 장외시장 금가격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.
- 소규모 금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, 일반 소액 금투자자들의 금 관련 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
-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런던 금시장 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선물시장 수요 흡수가 기대됨.

(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,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, 6/23)